

David Bauer 박사, 귀납적 성경 공부, 강의 26, 야고보서 4:1-12

© 2024 데이비드 바우어와 테드 힐데브란트

귀납적 성경 공부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Dr. David Bower입니다. 26회차 야고보서 4:1-12 입니다.

이제 4장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4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상기시키기 위해 저는 3장 1절부터 4장 12절까지 이어지는 부분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의 중간에 우리는 아래로부터의 지혜에 반대되는 위로부터의 지혜를 제시합니다. 이는 야고보가 이전 자료에서 두 가지 모두 제시한 원인 또는 기초인 것으로 보입니다. 3:1부터 12까지 그리고 다음 자료 4:1부터 12에서 그의 관심의 중심은 실제로 그가 지혜의 관점에서 3:13부터 18까지 제시하는 성격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위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요 위의 지혜는 사람의 본능과 뜻대로 된 아래로부터 난 지혜니 위로부터 난 지혜는 반대되는 것이니라.

그는 정말로 13절부터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근본적이거나 본질적인 성품 종류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여기 14절에서 마음에 대한 언급이 시사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쓰러진 질투와 이기적인 야망이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짓되게 하지 말라 이는 아래로부터 오는 지혜가 3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제어되지 않는 말, 제어하지 못하는 혀로 표현되고 4장 11절부터 12절에 있는 다루지 않는 말, 다른 사람을 향하거나 남을 향하여 하는 악한 말이라 함이라, 그리고 또한 그가 4:1부터 6까지에서 부르는 전쟁과 투쟁의 관점에서, 반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자세히 설명되거나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그가 4:7부터 10까지에서 묘사하는 행동의 기초로 사용됩니다.

그럼 그 알림을 가지고 4시 1분부터 10분까지 여기를 선택하세요. 여기에 있는 내용은 음, 먼저 이것이 어떻게 읽혀지는지 스스로에게 상기시킨 다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기록해 두겠습니다. 구조상. 전쟁의 원인은 무엇이며,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열정이 여러분의 지체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원하면서도 갖지 못하므로 살인하고 탐하여도 얻지 못하므로 싸우고 싸우느니라. 당신이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돈을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니라. 불성실한 피조물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이 말한 것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비참하고 슬퍼하며 울어라. 여러분의 웃음을 애통으로, 여러분의 기쁨을 낙담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낮추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 번, 상세한 분석을 수행할 때 한발 물러서서 광범위한 전반적인 움직임의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세부 사항에 얽매이지 말고 광범위한 틀에서 세부 사항으로 이동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하면 4.1부터 10까지가 문제와 해결 방법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심문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내전에서 비롯되는 전쟁과 다툼은 결국 기도의 무능함에서 비롯되고, 결국에는 문제 해결에 대한 세상과의 우정이나 하나님과의

적개심에서 비롯됩니다. 5장부터 10장까지에서 발견되는데, 먼저 신의 주도권을 갖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다루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했듯이 그는 실증의 반복에 따라 구조화된 구절인 4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 문제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언급한 것처럼, 그는 외부 결과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이러한 전쟁과 투쟁의 더 깊고 더 깊은 원인으로 뒤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에서 무엇이 원인인지, 물론 여기에서도 무엇이 전쟁을 일으키는지, 무엇이 여러분 가운데 싸움을 일으키는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여기에서 사용하는 언어, 무엇이 전쟁을 일으키는지, 무엇이 여러분 가운데 싸움을 일으키는지 주목합니다. 확실히 그는 그가 이 서신을 전하고 있는 공동체 사이에서 또는 공동체 내에서 전쟁과 싸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이 언어, 전쟁, 싸움을 비유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문자 그대로의 전쟁이 있거나 그들 사이에 문자 그대로 주먹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야고보는 여기에서 살인이나 살해를 포함하여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을 부당하게 제거하는 것과 관련된 비유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 이 내용은 5장 6절에서도 자기 밭에서 잔디를 깎는 일꾼들에게 샅을 주지 않은 집주인에 대해 말하는 것 같습니다. 5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가 너희를 대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가 문자 그대로 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 지점에 도달하면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에게 대한 부당한 소송을 심지어는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지점까지 제기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했듯이, 그가 문자 그대로 말하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이것은 아마도 은유적 언어일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랄프 마틴(Ralph Martin)과 같은 일부 주석가들이 그 과정에서 주석가들을 언급해 왔지만, 랄프 마틴(Ralph Martin)은 Word Biblical Commentary

시리즈에서 야고보에 대한 훌륭한 주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랄프 마틴(Ralph Martin)은 제임스가 원래 여기서 문자 그대로의 전쟁, 문자 그대로의 싸움, 문자 그대로의 살인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랄프 마틴이 야고보서의 구성에 대해 2단계 이해를 채택했다는 사실로 인해 실제로 설명됩니다. 그는 야고보서를 일종의 임계 질량이나 중심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본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서의 많은 내용은 예수의 형제 야고보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유대인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야고보와 매우 좋은 관계를 가졌고 실제로는 일반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았으며, 로마 점령자들에 대항하는 유대인들 사이의 다양한 반란 단체와 운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고보가 죽은 후 아마도 갈릴리나 남부 시리아에 있던 야고보의 추종자 몇 명이 야고보가 유대에 있는 유대인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한 내용을 가져다가 다음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거기에 몇 가지 사항을 추가하고 자료를 재배열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을 형성했습니다. 이 책은 그 당시에 지시되었고 특별히 내가 말한 대로 갈릴리 북부나 남부 갈릴리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어야 했습니다. 시리아.

그래서 마틴조차도 본문의 최종 형태에서, 이 책이 편집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에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 비유적인 언어였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원래 그는 문자 그대로의 전쟁과 문자 그대로의 싸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Ralph Martin의 논평이 여러 면에서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런 종류의 재구성에 도달하면 필연적으로 움직임 수밖에 없으며 사람은 추측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나 자신도 그러한 종류의, 예를 들어 2~3단계 이전의 발전에 기반을 두는 것에 대해 꽤 느슨하게 앉아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종 텍스트의 형성.

또는 내가 말했듯이, 사실상 모든 사람들은 이 텍스트의 최종 형태, 적어도 이 텍스트의 최종 형태에서 이 언어가 비유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이런 종류의 매우 강력한 비유적 언어, 전쟁 및 싸움을 사용하여 여기 공동체 내의 혼란, 불일치 및 불화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제임스는 왜 이런 종류의

언어의 의미는 무엇이며, 왜 이런 종류의 언어를 사용하여 공동체 내의 불화와 투쟁을 묘사하기를 원합니까? 그는 분명히 공동체 내의 이러한 종류의 투쟁, 교회 내의 이러한 종류의 불화, 이러한 종류의 기독교 공동체의 붕괴를 언급하기 위해 가능한 가장 강력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어는 세 가지 요소를 강조합니다.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여기서 이런 종류의 언어의 의미는 무엇이며, 제임스가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상황을 실제로 어떻게 가리키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 이 언어는 한 가지를 나타내며 폭력, 파괴, 악의의 요소 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이런 언어의 세 가지 주요 요소는 전쟁과 싸움, 폭력, 파괴성, 악의입니다.

야고보는 교회 내에 일종의 불화, 즉 교회 내에서 투쟁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참된 그리스도인 친교의 붕괴, 즉 적어도 폭력의 측면이 첨부된 교회 내에 일종의 불화가 있거나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폭력을 말하는 게 아니더라도 뭔가 폭력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 야고보는 혀를 오용하는 것, 즉 방종하게 혀를 사용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시사했습니다. 즉, 어떤 말은 폭력적입니다.

실제 피해를 입힙니다. 물론 파괴성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사람의 파괴로 이어집니다. 그건 그렇고, 나는 비유적인 언어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기 2절에서 표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원하지만 갖지 못하므로 죽입니다.

이는 실제로 이런 종류의 행동이 파괴적이며 악의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전쟁, 싸움, 살인은 이러한 행동 뒤에 실제 악의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제 그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가 실제로 하는 일은 내가 말했듯이 그가 여기의 원인에 관심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구절은 3장의 맨 마지막 절, 즉 바로 앞절과 대조되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여기서 말합니다. 이것이 제가 말했듯이 이것이 위로부터 오는 평화로운 지혜와 아래로부터 오는 지혜 사이의 대조를 끌어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지혜는 그가 말했듯이 질투와 이기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야망, 무질서,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물론 이것은 3.13부터 18까지 아래에서 지혜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설명의 관점에서 그가 말한 무질서의 표현입니다. 생각하는 동안 여기서도 언급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실제로 여기서 결과에서 원인으로의 진행이 있다고 말합니다. 즉, 외부 표현인 결과에서 소스, 원인으로 점진적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아래로부터의 지혜와 위로부터의 지혜를 설명할 때 당신이 갖고 있는 인과 과정의 역전을 포함합니다. 3장 15절과 3장 16절의 아래에서 오는 지혜와 3장 17절부터 18절의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한 설명에서, 당신은 그가 원인에서 결과로, 이 지혜 에서 다음으로 나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의 외부 효과. 여기서 그는 외부 효과에서 시작하여 원인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이러한 입증의 사슬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열정이 전쟁 중인 것이 아닙니까? 다시 말하지만, 전쟁 언어가 반복됩니다. 여러분의 지체 속에서 싸우는 것은 여러분의 정욕이 아닙니까? 이제 그는 여기에서 열정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열정이라는 단어는 에피투미아와 동의어인 edonea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정념인 에도네아(edonea)는 신약성경에서 에피투미아(epithumia)와 동의어로 사용되며, 에피투미아(epithumia)는 욕망이나 욕망 등을 뜻하는 단어이며 때로는 열정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나는 이것이 그가 여기서 말하는 열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러한 열정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가 유혹에 대해 말하는 1장 14절과 1장 15절의 갈망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셨느니라. 그런데 1장 15절에 나오는 이 욕망의 결과가 죽음이고 살인이 되는 것, 여기 우리 구절에서 이러한

욕망의 결과, 우리 구절에서 이 정욕의 결과가 살인이라는 것 사이의 연관성도 주목하십시오. 즉, 그는 죽음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1:14와 1:15의 욕구를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2절에서 그가 실제로, 그는 실제로, 이는 그가 에도네아를 에피투미아와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 그는 에피투메이테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원하지만 갖고 있지 않은 상피병의 동사 형태입니다. 따라서 다시 말하지만, 4장 1절에 사용된 단어와는 달리 1장 14절과 1장 15절에서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지만 실제로는 1장 14절과 1절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단어의 형태를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15 4:2 에서 이것은 그가 4:1 에서 언급한 무엇과 여기의 욕망과 분명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변곡점을 주목합니다.

제임스는 1장에서 욕망에 대해 복수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에서 말했듯이 각 사람은 유혹을 받고 자신의 욕망, 단수, 그 다음에는 욕망, 단수 등으로 유혹을 받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주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욕망은 당신의 열정이 아닌가? 당신의 회원들 사이에 전쟁이 있기를 원하지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야고보는 적어도 두 가지 열정이나 두 가지 욕망, 두 가지 열정에 대해 말합니다. 그가 거기서 이야기한 열정이나 1장 14절과 1장 15절에서 그가 말한 욕망은 우리가 말했듯이 유대인의 예제르 개념을 반영하거나 언급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자체로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개인 삶의 추진력이나 추진력의 전체 문제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이 있지만, 실제로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범위를 벗어나 모든 것을 통제한다면 그것은 사악한 욕망인 예제하라(yetzer hara)가 됩니다. 사람은 그 사람 내부의 다른 상쇄 충동에 의해 통제되지 않습니다.

그가 1장에서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야고보는 적어도 두 가지 욕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복수형, 분명히 선한 예처와 악한 예처를 주목합니다. 1:14과 1:15 에 나오는 이 하나의 중립적인 욕망이나 열정은 이제 야고보의 마음 속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는 경향이나 소망이 있으며, 4절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려는 경향이나 욕망이 있고, 악을 향한 경향이나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4절의 말씀대로 세상의 친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8절에서 이 사람을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즉 하나님과의 벗됨과 동시에 세상과의 벗됨을 원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걷는 내전입니다. 이러한 내부 전쟁은 필연적으로 외부 전투로 표현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부 전쟁, 이 이중 마음, 내부의 싸움과 갈등, 이 내부 전쟁은 필연적으로 외부 싸움으로 표현됩니다. 물론 고립된 기독교나 윤리는 없습니다. 이제 그는 2A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회원들 사이에서 열정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나는 그가 외부 싸움과 전쟁으로 표현되는 내부 투쟁을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체들 속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정욕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2절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너희가 원하여도 없어도 살인하는도다. 너희가 탐하여도 얻지 못하므로 싸우며 싸우느니라. 그리고 물론 그는 여기에서 소스 측면으로 되돌아가는 과정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2절에서는 무엇보다도 다른 개인에 대한 멸망을 포함하여 멸망시키고, 죽이고, 싸우고, 전쟁을 벌이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커뮤니티 전체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 내 다른 개인을 파괴합니다. 내가 다시 말했듯이 여기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은 살인의 은유적 사용입니다.

이 은유적인 살인 사용에 관해 잠시 멈추겠습니다. 실제로 야고보는 2A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데 매우 가까웠고 이어서 그는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성경에 따라 왕의 법을 지키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율법에 따라 범죄자로 정죄함을 받은 것이니라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어느 하나에 어기면 율법 전체를 범하였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셨느니라. 간음하지 아니하고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제 문맥에서 그는 편파성을 보이는 것과, 그렇게 하는 한,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것,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 사이에 연결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예수께서 산상 수훈에서 직접 제안하신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분노와 분노의 표현 측면에서 누군가, 특히 그리스도인 형제나 자매를 향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를 표현하는 데 관련된 모든 것은 어떤 면에서는 살인, 즉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있는 산상수훈의 첫 번째 대조입니다. 그 다음에는 옛 사람들에게 말한 것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죽이라 누구든지 죽이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자기 형제를 모욕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하다고 하는 사람은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형제나 자매를 향한 이런 종류의 분노한 행동과 살인 사이에 제재, 즉 형벌이 각 경우에 동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적어도 거기서는 어느 정도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 특히 동기와 태도 측면에서 이런 분노의 태도, 이런 행동은 정말 똑같다는 것 살인의 태도 등이 친절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제임스는 이러한 종류의 부당함, 화를 내거나 악의적인 태도, 그리고 어느 정도는 공동체 내의 다른 사람들을 향한 행동과 살인 사이에 이런 종류의 태도를 가지라고 제안함으로써 연결점을 찾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태도를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충만한 삶을 제공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서 철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든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과 어느 정도는 그 사람에게 실질적인 해를 끼치고 실제로 위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제 그 이상으로 우리는 그가 여기 2절에서 공동체 자체의 파괴를 넘어 공동체 내의 다른 개인들의 파괴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내 생각에 그는 2절에서 두 사람

사이의 연관성도 강조합니다. 내부 및 외부 갈등. 또 네가 원하면서도 갖지 못하여 죽인다. 너희가 탐하여도 얻지 못하므로 싸우고 싸우느니라.

따라서 사실, 당신의 욕망과 그러한 욕망을 충족할 수 없는 무능력, 그러한 욕망을 실현할 수 없는 것 사이, 탐욕과 탐욕의 갈망을 충족시킬 수 없는 무능력 사이에 투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류의 내부 분쟁과 외부 분쟁 사이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내부 분쟁과 외부 분쟁 사이의 연결에는 실제로 두 가지 연결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욕망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당신은 원하지만 얻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탐욕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그가 욕망에 관해서는 욕망하지만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인다고 말할 때, 그는 여기에서 충족되지 않은 욕망의 좌절을 지적하면서 이를 암시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것을 가져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탐욕에 관해서, 당신이 탐하지만 얻을 수 없어서 싸우고 전쟁을 벌이는 경우, 그는 여기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시도가 그들이 이러한 파괴적인 모드를 취하게 만든다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착취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려는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향해 화를 내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제 그는 여기 3절에서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당신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당신이 갖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의 열정, 즉 충족되지 않은 욕망과 충족되지 않은 탐욕의 내부 전쟁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그는 한걸음 더 나아가 그것이 기도의 무익함 때문에 바라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1장을 검토하면서 이 서신에서 야고보가 갖고 있는 관심사 중 하나가 응답받지 못한 기도라는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1장 5절부터 8절까지에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는 계속해서 서신의 본문과 서신의 나머지 부분에서 그것을 다시 꺼내서 발전시킵니다.

그는 다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기도의 문제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이유는 당신이 묻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내 생각에 그는 여기서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절에서 알 수 있듯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갖지 못한다고 말할 때, 만약 당신이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관점에서 이것을 읽는다면, 당신은 이 야고보가 이러한 꺼림이나 회피, 구하지 않음을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의 믿음이 부족함이라.

그런 다음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실 여기서 요점은 그들의 삶의 이러한 좌절이 그가 이미 1:16에서 설명한 하나님으로부터 고립되어 선한 삶을 얻으려는 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18절을 통해 모든 선의 근원이 되십니다. 당신은 묻지 않는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당신이 구하더라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것을 열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 3절에 있는 내용은 목적에 관한 진술입니다. 그리스어로 히나(hina) 진술입니다. 히나, 그러려고 잘못 구해서 구하고 받지 못하느니라.

당신은 순서대로 또는 당신의 열정에 돈을 쓸 목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에 했던 단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봐도 틀린 질문을 합니다.

그들의 동기는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허락하시는 것은 사실상 사랑이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기 야고보가 제시한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가진 것을 열정에 소비하는 것은 실제로 자기 파괴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허락하시거나 응답하시는 것은 참으로 사랑이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당신의 열정에 쓰라고 잘못 요구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1장 5절부터 8절까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여기서 그는 기도에는 올바른 태도로 구하고 구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여러분은 올바른 동기로 요청했고 지금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는 적어도 잘못된 동기를 포함하지 않는 방식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1장 5절부터 8절까지에서 야고보는 기도의 역동적인 대인 관계 특성을 강조합니다. 기도는 마법의 부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과 뜻에 어긋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그는 여기 4절에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4절입니다. 불성실한 피조물들이여, 세상과 벗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임을 모르십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듯이 그는 더 깊이 들어갑니다. 기도로 받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적인 욕망의 대상과 관련이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즉, 세상과 관계를 맺고, 친밀감을 갖고, 연결하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된다. 세상적인 욕망, 세상에 속한 욕망을 이루기 위해. 그것은 세상적인 것입니다.

기도에서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욕망의 대상, 세상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된 것입니다.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또한 그들이 그분의 원수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임을 지적함으로써 3절을 입증합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기도가 아니라 친구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응답받는 기도, 효과적인 기도의 열쇠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관계는 우정의 관점에서 이해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친구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그의 원수들에게는 아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느님의 친구가 되는 데는 무엇이 관련됩니까? 글쎄, 우리는 답을 찾기 위해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야고보가 이미 2장 23절에서 행위로 표현된 그런 종류의 사람인 아브라함에 관해 말한 것에 의해 암시됩니다. 2장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또한 야고보는 이 구절, 즉 4장 4절에서 세상과의 우정과 하나님과의 우정은 상호 배타적임을 강조합니다.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둘 중 하나는 하나님의 친구이고, 세상의 친구는 둘 다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가 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위치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과 반대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상과의 우정과 하나님과의 우정을 상호 배제하는 이면에는 우정에는 전적이고 배타적인 헌신이 수반된다는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우정에 대한 총체적이고 배타적인 헌신을 수반하는 견해 또는 개념, 우정의 개념입니다.

이제 그는 계속해서 왜 그런지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앞으로 말할 내용을 예상하기 위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질투하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내 생각에 우정의 문제에 관해 달리 표현하면 세상과 하나님 모두 우리에게 궁극적이고 배타적인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이것을 언급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문구가 있습니다. 그가 그들을 불성실한 피조물이라고 부르는 것을 얼마나 암시적으로 언급하는지 주목하십시오. 사실 헬라어에는 피조물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것 같지만 여기서는 간음하는 자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별로 신실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도나 사도가 아니라 간음하는 자들입니다.

야고보는 구약에 나오는 간음의 풍부한 언어에 대한 풍부한 이미지를 끌어내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우상 숭배의 관점에서 문자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은유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우상 숭배의 언어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는 이스라엘의 간음으로 묘사됩니다.

이스라엘이 간음을 범했습니다. 물론 구약성경 전반에 걸쳐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매우 지배적인 내용입니다. 아마도 이에 대한 가장 생생한 표현은 호세아서의 처음 세 장일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로 하여금 일종의 구체화된 예언, 즉 성육신적인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은 그곳에서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멜이 어떻게 자기 남편을 상대로 간음했는지, 처음에는 창녀였고, 물론 결혼 후에 한 번은 남편을 상대로 간음했습니다. 그녀의 남편 고멜은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좇아 여호와께 간음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비유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가 말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그에 속한 모든 부유한 교제 측면에서 세상과의 우정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장 13절부터 18절까지 에서 묘사한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효과이자 그 특정화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영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되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이 말한 것이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해결책은 신성한 주도권으로 시작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하고 급진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그것은 초월적인 악의 세력의 활동을 포함합니다.

내가 말했듯이, 그가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할 때 이것은 그가 마귀적이라고 묘사한 아래로부터 오는 지혜의 표현입니다. 문제가 초월적이기 때문에 해결책도 초월적이어야 합니다. 해결책에는 신성한 능력, 즉 우리 자신을 초월하는 능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제 5절과 6절의 이 신성한 주도권에 관해 우리는 실제로 인용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성경 말씀이 헛된 줄로 생각합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구약성경을 검색하거나 사실상 구약성서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 문헌,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유대 문학을 연구할 기회와 여가가 있다면 야고보서가 출판되기 전에는 이 특별한 진술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이 일부 유대인이나 유대 기독교인에 의해 성경으로 간주되었을 수 있는 비정경적인 책, 즉 우리에게 잃어버린 책, 오래 전에 우리에게 잃어버린 책에서 나온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글쎄, 내 생각엔 증거가 정말 반대인 것 같아. 위대한 구약성서 학자인 Brevard Childs가 지적했듯이 신약성서에서 graphe 또는 그 동사 형태가 일반적으로 완료형인 gegrapti일 때마다 graphe, Bible로 기록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 gegrapti는 기록되어 사용되며 항상 정경 구약의 인용문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구절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발견된 구절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저번에 서사 전승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물론 신약에서는 구약에 비해 그 과정이 훨씬 더 길지만 어쨌든 필사자의 전달 과정은 우리에게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히브리어 성경의 일부라고 생각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구절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은 성경 구절이나 진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그런 걸 갖고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즉, 원래 인용문의 관점에서 이에 대한 맥락이 없더라도 확실히 이 맥락의 의미는 매우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갖고, 그분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성령을 되찾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이 영, 즉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우리의 영을 우리가 그분께 양보하지 않으면 그분의 질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실제로 부당한 남편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성경적 전통에 따르면, 결혼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속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속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간음하여 다른 여자에게 자신을 내어주면 질투가 생깁니다. 또는 여자가 간음하여 다른 남자에게 몸을 쏟으면 질투가 일어나니 하나님에게도 같은 질투가 있느니라.

물론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편에서 정당한 질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을 우리 안에 두신 한, 그것은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그분의 질투, 그분께 돌려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 전통에서 질투는 매우 심각한 위험을 수반하며, 특히 하나님 편에서 질투는 성경 전통에서 심각한 위험을 수반합니다.

그것은 그분의 진노, 진노, 심판의 표현의 기초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 질투는 단순히 위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희망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성령을 질투심으로 갈망하신다는 사실은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고, 허락하시도록 격려하시고, 그에게 성령을 돌려주시도록 우리를 추구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줍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영을 그분께 돌려드리지 않을 때 그분이 우리 안에 두신 영을 질투하십니다. 우리가 노력할 때, 우리 자신의 헌신, 즉 그분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성령을 공유할 때, 우리는 그것을 세상과 공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도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도 친구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영의 어떤 면을 하나님께 주시고, 우리 안에 주신 영의 다른 면을 보류하고 우정을 통해 세상에 주시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공유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소유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거나 남편의 사랑과 성행위를 다른 여자와 나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그는 그런 식으로 질투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영을 어느 정도는 그분께, 어느 정도는 세상에 맡기고 헌신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그런데 이것은 처음에 음란한 피조물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라는 간음하는 언어의 사용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완전한 주권자, 즉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주권자이시며, 그분은 전적으로 거룩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를 소유하고, 소유하고, 우리의 영을 완전하게 갖고자 하는 그분의 갈망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질투를 정당화하는 근거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질투의 실존적 기초입니다.

그분께는 그럴 권리가 있으며, 실제로 그분의 존재 깊은 곳에서 우리 모두를 원하시며 우리를 다른 누구와도, 특히 세상과 공유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6절에서 앞서 말씀하시는 것을 주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투하는 열정을 포함하지만, 그것과 관련된 것은 하나님의 넘치도록 은혜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당신에게는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매우 약한 접속사인데 다시 한번 but here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대조로 번역됩니다. 따라서 RSV에 따르면 6절은 5절과 대조되지만 그분은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우아함.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분명히 질투와 은혜 사이에는 약간의 대조와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질투에는 위험이라는 생각이 수반되지만, 은혜에는 도움이라는 생각이 수반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질투에는 위험, 위험, 판단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희망도 포함됩니다. 당신이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한다면 나와 친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보낼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아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희망의 말씀이며 은혜의 개념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우리 안에 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은 신성한 것을 일부로 갖고 있으며,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재결합할 때까지 완전히 만족할 수 없으며, 하나님과의 재결합, 즉 우리의 영을 그분과 재결합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은 은혜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질투에서 비롯되며 그분의 은혜를 통해 실행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간음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도로 찾으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주시고, 여기 영어의 현재시제를 주목하면 현재시제를 진행형 현재로 반영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실제로 RSV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번역하는 방식인 더 많은 은혜로 번역합니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하나님은 더 큰 선물, 더 큰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죄와 심판보다 더 강하다는 의미에서 더 크고, 정말로 더 큼니다. 이것이 바로 문맥상 더 큰 선물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바로 범위의 대조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죄와 죄에 대한 심판보다 더 큰 선물입니다. 회개를 통한 구원의 가능성입니다.

그가 계속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여기 이어지는 구절에서 회개를 통한 구원의 가능성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가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요구할 때, 곤고한 일과 애통하는 일과 우는 일, 웃음을 애통으로, 기쁨을 낙심으로 바꾸며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일, 그 사람에게 권면을 받은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이런 종류의 회개의 가능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회개가 좋은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117절을 기억하십시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모두 위로부터, 변함도 없으시고

변함도 없으신 아버지께서 내려옵니다. 물론, 그것은 분명히 신의 주도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일종의 단일론이 없습니다. 즉, 비록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도로 시작되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스스로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인간 참여에는 실제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에 대한 응답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실제로 은혜가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종류의 구속은 인간이 행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언급하는 한, 이것은 실제로 은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의를 행하는 일이나 행함에서 오는 일종의 구원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들이는 문제, 은혜를 받아들이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너지 효과, 즉 구원 과정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일하는 방식이 신약에서 항상 이해되는 방식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실제로 중요한 문제이며, 우리 자신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하는 문제가 아니며,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선물을 받는 것과 관련된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일종의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것들이 건강하고 하나님과의 구원 관계에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한, 그가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러한 종류의 수용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기에는 일련의 권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원인을 알아보세요. 그분은 더 큰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이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 자신을 복종시키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실제로 이 인간의 반응에는 일종의 괄호 같은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섯 가지가 관련되어 있지만 첫 번째와 마지막은 실제로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하나님께 겸손하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겸손하십시오.

자, 내가 말했듯이, 이것은 6절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겸손하십시오. 자, 저는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이 제가 말했듯이 일종의 포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하나님께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중간에 나오는 권고가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손을 씻으라 죄인들이여 두 마음을 품고 죄인들이 손을 씻고 두 마음을 품고 마음을 정결케 하라 슬픔에 대하여 하나님의 뉘우침을 경험하라 내 생각에 이것들은 그것이 포함하는 특별한 표현이고, 이러한 개입 요소들은 특정한 내용,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구체적인 내용, 자신을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복종하거나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과 같은 진술이 있을 때 묻는 것이 적절하다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확히 어떤 모습인가요? 자, B부터 E까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거나 주님께 자신을 낮추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우선 여기에는 자신을 낮추거나 주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구체적인 수단이 포함됩니다. 여기 8절에서 그가 말했듯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7절 B.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리하면 마귀가 여러분에게서 도망할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당신에게서 도망할 것입니다. 이는 마귀가 다음 문장에서 말하는 것과 실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두 진술이 서로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귀에게 저항하고 당신과 마귀 사이에

거리를 두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당신에게서 도망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마귀도 당신에게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물론 각 경우에 사용되는 공간적 언어는 악마가 우리에게서 도망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마귀를 대적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마귀와 하나님 모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겁을 먹고 도망가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과 악마 모두 우리의 계획에 반응합니다. 8절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손을 깨끗하게 한다는 이 개념 역시 실제로는 구약성경과 유대교의 표현입니다. 이는 올바른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올바른 헌신, 즉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의 올바른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는 여기에서 죄인과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사이에 유사점을 그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야고보서에 나오는 악이나 죄의 궁극적인 표현은 악을 행할 뿐 아니라 실제로 두 세계에 살면서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향한 성향과 동시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성향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화하십시오. 물론 이것은 단일성, 단순성의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십시오. 물론 내부 태도와 약속, 외부 표현 사이에는 이분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두 가지는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제 그들은 8절을 근거로 여기에서 말장난을 하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지만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첫째, 마귀를 대적하는 이 사업은 마귀가 여러분에게서 도망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여기에는 개인적인 회개의 성격이 포함됩니다.

8절은 행동과 마음의 상태, 다시 말해서 사람 전체를 포괄하는 회개의 범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도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 여러분의 웃음을 애통으로, 여러분의 기쁨을 낙담으로 바꾸십시오.

이는 회개의 깊이, 절대적으로 진지함을 나타냅니다. 가련한 상태로 인해, 당신의 가련한 상태로 인해, 마지막 심판이 두려워서 슬퍼하고 울십시오. 지금 슬퍼하고 울면 다가오는 심판 때에 슬퍼하고 울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구약의 언어입니다. 그것은 깨어진 관계에 대한 슬픔이나 슬픔, 그리고 깨어진 관계의 영향을 말합니다. 물론, 깨진 관계와 깨진 관계에 대한 슬픔은 죽음에 대한 슬픔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애도의 언어와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관련된 언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죽음의 진정한 고통은 깨어진 관계이고 실제로는 깨어진 관계의 최종성이기 때문입니다. 저번에 언급했듯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는 여기 이 땅에서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관계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도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 9절에서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삶의 과정과 완전히 단절된 행동, 특히 초월적인 하나님의 현실에 겸손히 복종하기 위해 자급자족과 세계 안보와 단절되는 유형의 행동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에서 그는 무질서한 말의 개념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그는 혀를 오용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3장 1절부터 12절까지에서 그는 여기에 다시 등장하지만 약간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악한 말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는 4장 11절부터 12절까지를 보도록 합시다.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어는 카타 라라이타(kata lalaita)입니다. 반대하지 마세요, 정말로 서로 반대하지 마세요. 거기에서 그는 그것을 번역했는데 그것은 훌륭한 번역이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만일 네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니라. 입법자와 재판자는 능히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거니와 너는 누구이기에 네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문단의 제임스의 주장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그는 아주 전형적으로 권고로 시작해서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그가 여기서 하는 일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것이 권고이고 나머지 부분은 4:11a, 4:11b부터 12까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재판관이 되는 것이며, 이는 율법과의 합당한 관계에 위배되며, 입법자이신 하나님과의 합당한 관계에도 어긋난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제 이것은 내가 말했듯이 실제로 혐의 악과 관련이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3장 1절부터 12절까지와 아래로부터 오는 지혜인 3장 13절부터 18절까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반면에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강조점은 혐의 파괴적인 힘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혐의 오용과 율법, 실제로는 입법자이신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있습니다.

또한 내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이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악한 일에서 비롯될 수 있고, 그가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에서 묘사한 질투와 이기적인 야망의 결과일 수도 있고, 물론 4장 1절의 호전적인 걱정에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4. 이제 여기서 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서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이 비디오 시리즈의 앞부분에서 이것을 몇 번 언급했지만 그리스어에는 금지를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may, that은 부정과거 가정법의 부정문인데, 이는 don't even start를 의미합니다.

다른 하나는 현재 명령형을 사용하는 may인데, 이는 일반적으로 일을 멈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에 문제가 있거나 이 악한 말과 관련하여 여기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서로 비방하는 것에 대해 말할 때, 내가 말하는 것처럼, 즉 서로 비방하는 말, 즉 카탈레타(katalēta)는 여기서 특히 동료 그리스도인을 도덕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정죄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동료 그리스도인에 대한 영적 정죄.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실증에서 그가 악하다고 말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과 연결하고, 형제를 비방하는 것을 형제를 판단하는 것과 연결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는 형제에 대해 악한 말을 하거나 형제를 판단한 다음 판단과 정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형제를 판단하고, 말로 판단하는 태도를 표현하고, 말로 판단하는 태도를 표현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고 다양한 측면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에 기여하지 않는 한 혐의 죄가 포함됩니다.

120절에서 야고보가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노하는 것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즉, 잠시 멈추라는 일종의 권고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1장에 나오는 혐에 관한 보다 일반적인 권고, 잠시 멈추고 자문해 보아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합니다. 내가 말하려는 내용은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의로운 표준을 세우고 확립하는 데 기여합니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사회, 공동체에 기여하는가? 잘될까?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의 형제나 자매에 관해 말하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그리스도 안의 형제나 자매에 관해 내가 말하려는 내용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이것은 또한 형제나 자매에게 의심의 이익을 주는 것, 행동 등에 대해 가능한 최악의 동기를 할당하거나 가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보다 최악의 동기를 행동에 할당하려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왕의 법, 2H,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더 넓은 맥락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내용을 활용하여 여기서 언급할 수 있는 다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는 내가 말했듯이 11절B와 12절에서 형제에 대해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을 입증합니다. 12절 끝부분에서 그가 말하는 내용은 암시합니다. 그러나 너는 누구이기에 네 이웃을

판단하느냐? 단지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동료나 형제자매들만이 아니라, 여전히 그 안에 있는 형제들과 우선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여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형제를 헐뜯거나 형제를 비판하는 사람을 그런 일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11절의 마지막 진술이 암시하는 것처럼 더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먼저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율법을 비방하거나 율법을 판단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너희가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며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니 너희가 이 일을 행함으로 율법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니라.

물론 율법은 하나님 공동체의 동료 구성원을 비방하는 이런 종류의 말을 실제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분명히 사랑의 계명, 사랑의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사실, 특히 그가 율법을 거슬러 악한 말을 하고 율법을 심판한다고 말할 때, 그가 2.8에서 묘사한 으뜸가는 법은 당신이 정말로 성경에 따라 으뜸가는 법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만일 형제나 자매에 대하여 악한 말을 하면, 율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다는 의미에서 율법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법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합니다. 또한 그가 여기서 계속해서 말할 것처럼 법은 판사가 한 명임을 분명히 선언한다는 점에서 법에 어긋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판단할 때, 당신은 율법에 있는 주장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우리가 여기서 언급한 것처럼 이것에 대한 두 번째 실증을 제시합니다. 즉, 그는 율법의 수여자인 율법과의 올바른 관계에 반하여 여기서 구체적인 구절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11c와 12절에서 발견되는데, 만일 당신이 법을 판단한다면 당신은 법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그리고 물론 그것은 그분의 심판 사역, 곧 적극적인 심판, 구원과 소극적인 심판, 멸망을 구체적으로 나타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거늘 너는 누구이기에 네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므로 형제나 자매에 대해 악한 말을 한다는 것은 물론 그 형제나 자매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실제로 하느님께만 속한 특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는 한, 당신은 피조물의 경계를 범하는 것이며, 이는 적어도 어떤 관점에서 보면 궁극적인 죄라고 제임스는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재판관의 역할을 떠맡고,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 자신에게만 돌리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글썄요, 우선, 그것이 가정하는 것, 우리는 여기서 함의, 특히 가정의 라인에 따른 함의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는 우리가 완전한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데, 야고보는 이것을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우리는 형제나 자매를 판단할 때 우리가 완벽하게 수행했다고 가정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결점이 있고, 결점이 있고,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은 누구를 판단할 권리도 없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근거도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3.2의 이 부분 시작 부분에서 제임스가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많은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완전한 특권을 전제로 합니다.

동료 그리스도인의 운명에 대한 특권입니다. 즉, 누군가를 판단하지만 실제로 그 판단을 실행할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비즈니스 판단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하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하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멸하실 수 있다는 사실, 그분이 심판을 집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은 그분의 심판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느 누구도 지옥 불에 넣을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심판의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판단한다는 것은 초월성을 반영하는 능력, 즉 합법적인 판단의 유일한 기초인 능력을 우리가 구원하고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괜찮은. 멈추기 좋은 곳. 우리는 James를 마무리하거나 적어도 우리가 돌아올 때 마무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귀납적 성경 공부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Dr. David Bower입니다. 26회차 야고보서 4:1-12 입니다.